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대현*
곽연미**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교회학교 교사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 이를 교사교육에 반영하여 더 나은 교회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에서 313명이 성실하게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결과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들은 교사의 자질 중 영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학부모가 교육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때, 교회 시스템 측면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갈등 및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개인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 항목(주중 심방, 주일에 일찍 일어나기, 동료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의 일에 간섭할 때, 아이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고 느낄 때, 교육부서 일로 사적인 부분이 침해당할 때,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모임이나 회의 참석이 힘들어질 때 등) 모두에 대해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교회가 교사들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더 나은 교회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제어: 교회학교, 교사, 갈등, 스트레스

*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총신대학교 기독교유아교육전공 박사 과정

2014년 4월 1일 접수, 5월 11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I. 서론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미래가 밝으려면 현재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즉,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에 있어도 중요한 일원이다(김청봉, 2008: 38).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받으셨듯이 교회 역시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1780년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kes)에 의해 영국의 조그마한 부엌에서 시작된 주일(교회)학교(김희자, 1998: 35)는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교육을 돕고,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대중적인 기독교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다(김청봉, 2008: 17). 교회교육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후대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가르치는 데 있다(박영수, 2010: 33). 교회학교는 교회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다음 세대를 좀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군을 길러내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이철승, 2011: 3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교회학교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교회학교는 대부분 영유아부(취학 전 연령),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영유아부는 교회교육의 출발점이며, 신앙발달 과정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형성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성경에서도 영유아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한 예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무엘은 젖을 떼 후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주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암울한 사사시대에 어린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삼상 3:1). 세례요한은 태어나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눅 1:15). 다윗은 유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하나님이었음을 선언하였다(시 22:9-10; 71:6). 또한, 사도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미리 구별되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이야기 하였다(갈1:11-17). 이처럼 어린이의 초기 믿음은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서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교회학교에서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이다. 유진 로엘케파튼(Eugene C. Roehlkepartain)은 그의 책 *The Teaching Church: Moving Christian Education to Center Stage*(Roehlkepartain, 1993: 100)에서 교사가 교회 학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사를 모래시계의 좁은 목에 비유하고 있다. “교사는 모래시계의 좁은 목과 같다. 모든 것이 그들을 통해 간다. 그들이 효과적이면 학습은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흐르지만, 그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학습은 막히거나 방해받게 된다.” 그는 효과적인 교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되므로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교사가 교회교육에 있어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교사들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므로, 교회가 ‘어떤 교사들을 세웠고, 어떤 교사로 만들었는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박영수, 2010: 148). 하나님은 교회 특히 교회학교 교사에게 어린이가 예수님을 “와 보도록” 돕는데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다. 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한 요소이다.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사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무엇보다 교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교사 스스로도 자신의 영과 육을 늘 돌보아야 한다.

교사직은 분명 교회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분이며, 보수나 명예심이 아닌 소명감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기에 직분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으므로, ‘소명’ 하나로만 교사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사들을 돕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집에 대한 그림, 훈련에 대한 그림, 이탈하거나 탈진한 교사들을 위한 그림, 다시 격려하며 재배치하는 그림, 그리고 오랫동안 교사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는 교사들을 위한 그림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이철승, 2011: 70).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적·육적으로 잘 돕고 관리하는 일이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유기체에 비유 되는데,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로 드러난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 구성원들은 인적 또는 물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

레스란 개인과 환경이 조화가 되지 않아 불쾌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현상이다(박은혜, 2012: 274). 교회학교 교사들은 예배 지도하기, 공과 및 공과준비, 아이들의 발달과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교육하기,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기, 또래교사 및 학부모와의 관계 맺기, 부서 행사 및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기 등 그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무리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일일지라도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누구나 탈진상태에 빠지기 쉽다. 교사는 주로 개인적 원인(개인생활의 문제로 인한 위기, 즉 가정문제나 직장, 학교 문제, 또는 신앙에 대한 회의나 실연 등으로 겪게 되는 위기 등), 교회적 원인(교회 자체에 대한 회의감, 교인들과의 갈등 등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등), 교육현장에서 오는 원인(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자신의 한계, 무력감, 교회교육에 대한 회의 등) 등의 이유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심현수, 2009: 52).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다보면 후에 큰 문제로 확대되어 좁게는 교사 자신과 교회학교 영유아들에게, 넓게는 유기체인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전에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확인하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교회학교 교사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자질 및 역할(권용근, 2005; 손정위, 2011; 신현광, 2012; 윤혜림, 2010), 교회교육과정 및 방법(김성혜·강관혜, 2012; 심현수, 2009; 이점조·최영희, 2009),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요구도(박미라, 2001; 신언혁, 2004a; 장화선, 2010)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교사 내적 요인(정서, 심리 등)에 관해서는 소명(신언혁, 2004b), 교사 정체성(김덕순, 2004)에 관한 연구 등 소수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사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 이를 교사교육에 반영하여 더 나은 교회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자질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2.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3.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회학교 시스템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4.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개인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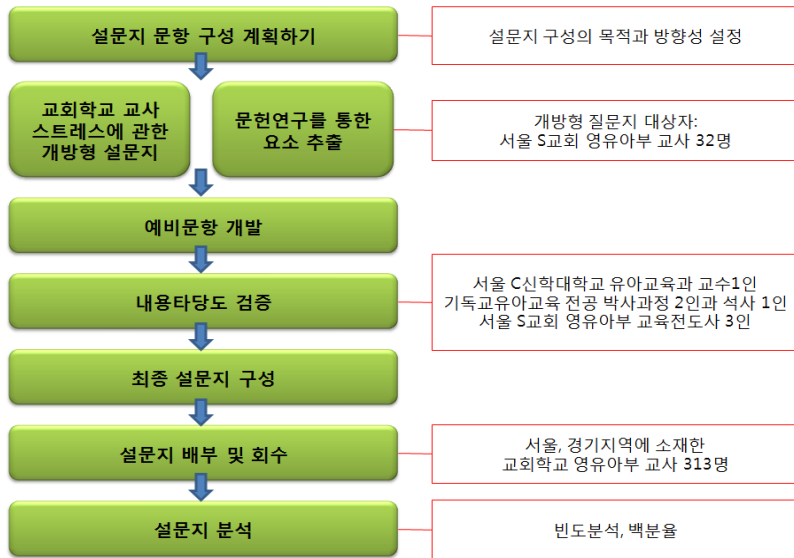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 예비문항 개발을 위해 서울 S교회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 32명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둘째, 개방형 설문지 응답내용과 문헌 연구 자료를 기초로 구성된 각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7명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서울 C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인, 기독교유아교육 전공 박사 과정 2인과 석사 1인, 서울 S교회 영유아부 교육전도사 3인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설문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 400명이 참여하였다.

2. 연구절차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

먼저 설문지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 후, 서울 S교회 영유아부 교사 32명을 대상으로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개방형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둘째, 개방형 설문지의 응답내용과 교사 스트레스와 관련된 학술지, 학위논문, 단행본 등의 문헌 고찰을 통해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한 1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구성된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7명의 전문가집단(서울 C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1인, 기독교유아교육 전공 박사과정 2인과 석사 1인, 서울 S교회 영유아부 교육전도사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 313명이 최종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였고, 이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처리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자질, 인간관계, 교회학교 시스템 그리고 개인적 측면에서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통한 빈도와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자질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자질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순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지식	40(12.9)
기술	48(15.4)
태도	40(12.9)
영성	183(58.8)
계	311(100.0)

<표 1> 자질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자질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결과, 영성($n=183$, 58.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술($n=48$, 15.4%), 지식($n=40$, 12.9%)과 태도($n=40$, 12.9%) 순으로 나타났다.

교회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복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교사의 바른 영성 위에서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영성은 참된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는데, 교사의 신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확신과 조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며 이것이 기초가 될 때 확신과 열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교사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학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교사들의 영적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콕 외(Hancock et al.)는 신앙성숙을 인격적인 신앙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Christ centered living)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성숙이 다음의 순서를 거친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상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회개와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세례를 받음,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만남과 교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죄를 피함, 비록 육체적인 삶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매일의 삶을 통한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Hancock, 2005; 손정위, 2011: 144, 재인용). 이러한 척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학교 교사들의 신앙상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따른 교사 신앙교육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외에도 교회학교 지도자들은 교사들이 교회공동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제자훈련, 삶 나눔, 신앙상담, 개인경건생활 점검 등을 통해 교사가 영적인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으로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순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동료교사	80(26.3)
학부모	131(43.1)
교역자	32(10.5)
담임목사	58(19.1)
없음	3(1.0)
계	304(100.0)

<표 2>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결과, 학부모($n=131$, 43.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료교사($n=80$, 26.3%), 담임목사($n=58$, 19.1%), 교역자($n=32$, 1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중 3명(1.0%)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1)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학부모의 교육철학 및 방법이 나와 다를 때	39(12.5)
학부모가 교사에게 함부로 대할 때	61(19.6)
학부모가 교육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때	106(34.1)
학부모와 성격 및 기질이 맞지 않을 때	51(16.4)
기타	32(10.3)
갈등 및 스트레스 없음	22(7.1)
계	311(100.0)

<표 3>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결과, 학부모가 교육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때($n=106$, 34.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함부로 대할 때($n=61$, 19.6%), 학부모와 성격 및 기질이 맞지 않을 때($n=51$, 16.4%), 학부모의 교육철학 및 방법이 나와 다를 때($n=39$, 12.5), 기타($n=32$, 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모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연락이 힘들 때,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주지 않을 때, 무관심 등의 이유로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 중 22명(7.1%)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대 기독교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일임하고, 주일에 한 두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교사들이 어렵게 전화심방을 하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녀의 삶을 교사와 공유하기 보다는 간단한 안부 인사가 전부 이고, “잘 지내고 있어요.”라는 말로 대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교사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 이것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신적기관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험하는 영적인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히브리 민족의 부모들은 가정교육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가지고 시행하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1: 8). 이는 어떤 제도나 공식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가 아니라 생활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비형식적 교육이었다. 즉, 가정은 모든 생활 영역을 신앙과 연관시키며 주된 교육기관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는 성경에서도 끊임 없이 주지시키는 바이다(신 6:4-9, 31:11-13, 시 78, 잠 22:6, 딤후 3:15-16, 엡 6:4 등).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는 부모들에게 자녀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인식시키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삶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공동체 특히 교육부서의 담임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녀의 신앙발달에 힘을 쏟도록 하며, 부모-교사는 자녀교육의 협력자이자 조력자임을 인식토록 하여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서 차원에서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2)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동료교사의 교육철학 및 방법이 나와 다를 때	36(11.6)
동료교사가 교사로서 모범이 되지 않을 때	54(17.4)
동료교사가 상호협조하지 않을 때	70(22.5)
동료교사와 친해질 시간이 부족할 때	132(42.4)
기타	6(1.9)
갈등 및 스트레스 없음	13(4.2)
계	311(100.0)

<표 4>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결과, 동료교사와 친해질 시간이 부족할 때($n=132$, 42.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료교사가 상호협조하지 않을 때($n=70$, 22.5%), 동료교사가 교사로서 모범이 되지 않을 때($n=54$, 17.4%), 동료교사의 교육철학 및 방법이 나와 다를 때($n=36$, 11.6%), 기타($n=6$, 1.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끼리끼리 모일 때, 교사 간 나이차이가 많이 날 때 등의 경우에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반면, 응답자 중 13명(4.2%)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조항철(2002: 42-43)에 따르면 교사들은 대체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친교모임을 갖기 원하였으나 더욱 자주 만나기를 원하는 교사도 있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기도 나눔, 교수법 나눔, 경건시간 나눔 등의 모임보다는 친구모임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 역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주일 하루만 교제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하루 안에 대예배에서부터 교회학교 예배,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시간을 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부서 내 교사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면, 비슷한 또래와 취미를 가진 교사들이 짝을 이루어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거나 동일 연령을 담당하는 교사들끼리 매일 혹은 매주 모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또는 팀을 결성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게 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는 충분히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돈독해지게 마련이다.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의 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호간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라도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역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역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교역자의 교육철학 및 방법이 나와 다를 때	58(18.6)
교역자로서 모범이 되지 않을 때	58(18.6)
교사 외의 일을 시킬 때	14(4.5)
교역자와 성격 및 기질이 맞지 않을 때	83(26.7)
기타	40(12.9)
갈등 및 스트레스 없음	58(18.6)
계	311(100.0)

〈표 5〉 교역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역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결과, 교역자와 성격 및 기질이 맞지 않을 때(n=83, 26.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역자와 교육철학 및 방법이 나와 다를 때(n=58, 18.6%)와 교역자로서 모범이 되지 않을 때(n=58, 18.6%), 기타(n=40, 12.9%)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만나서 교제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교역자가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거나 경쟁을 유도 할 때 등의 이유로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 중 58명(18.6%)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담당교역자와는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조항철(2002: 30-31)의 연구에서 담당교역자와의 관계가 대부분 좋다고 평가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조항철은 담당교역자의 영적인 영향력(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역자)과 개인적 보살핌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담당 교역자와 성격과 기질이 다를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항철이 제시한 해결책은 두 가지 어려움 모두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해결책으로는 담당 교역자들이 평소 교사들을 심방하며 개인적인 교제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에 있다. 개인적인 교제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의 다름을 깊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확장되므로 이러한 방법은 성격과 기질이 다른 교사-담당교역자 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 및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3.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회학교 시스템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회학교 시스템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시간 부족	111(35.5)
공간 부족	62(19.8)
재정 부족	29(9.3)
교사 부족	88(28.1)
기타	10(3.2)
갈등 및 스트레스 없음	13(4.2)
계	313(100.0)

<표 6> 교회학교 시스템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회학교 시스템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결과, 시간 부족($n=111$, 35.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부족($n=88$, 28.1%), 공간 부족($n=62$, 19.8%), 재정 부족($n=29$, 9.3%), 기타($n=10$, 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학교에 대한 교회의 관심 부족, 교회학교에 대한 담임 목사의 철학 부재, 프로그램 부족, 일반유아교육과정을 따라갈 때 등의 이유에서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 중 13명(4.2%)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느라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일보다도 더 바쁘게 움직인다.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시간에 쫓겨 허덕이신 일이 없었으며,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셨다. 이에 대해 고든 맥도날드(MacDonald, G., 1984: 86-90)는 예수님의 효과적인 시간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

런하는 시간을 따로 내셨다.’ 즉,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성경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의 통찰력을 나눠주시는 데 투자하셨다.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고, 그것을 이루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간관리 전략은 교회가 깊이 연구하여 현장에 활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교회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교회의 프로그램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사역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이 감사함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보다 쉽게 지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만든다. 교회마다의 상황이 다르지만 1인 1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선순위를 한 가지 사역에 두어 거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헌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이 각자의 소명의 테두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하도록 하며, 시간을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바른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사부족 역시 대부분의 교회학교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조항철(2002: 29-30)의 『교회학교 교사들의 봉사만족도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가 56.5%, ‘그렇다’가 37.4%로 응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의 신앙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46.6%, ‘그렇다’는 29.8%로 응답하였다. 즉, 교사들의 시각에서는 교회가 교사의 직분을 다른 봉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로 하여금 의욕을 잃게 하고, 다른 봉사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장년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성경공부가 많아져 교회학교 교사모집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교회학교에 한 번 발을 들여 놓으면 다시 빠져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교사 내적 두려움과 ‘누군가 하겠지’라는 성도들의 의식 때문에 교사 지원을 잘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교사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교사직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소명의식이 있고 헌신적인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교사의 변화와 성장뿐 아니라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며, 교회학교 부흥과 교회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신현광, 2012, 478). 교회학교는 교회적인 차원

에서 일과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의 교사훈련을 실시하여 교사들의 소명의식 고취와 함께 소명 위에 잘 세워지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이 일에는 담임목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담임목사는 교육목회적 차원에서 교육적 분위기를 조성 및 고조시키며, 설교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하여 교회교육의 중요성과 그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고, 교회의 정책결정에 교회학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수시로 교회학교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심방과 상담의 과정에서 교사 후보를 물색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심현수, 2009: 43).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시간과 교사부족 못지않게 공간부족으로부터 기인한 갈등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교회학교의 물리적 환경의 구성과 관리는 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바람직한 교회 운영을 나타낸다(김동춘, 2006: 197). 다음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학교 성장이 필수적이며, 그와 더불어 시설·설비 등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교회마다 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학교의 공간을 확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이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물리적 요소가 된다. 교회 공간 활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김민태, 2010; 김휘정, 2012; 이종희, 2005; 최학, 2008)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교회 공간의 정체성 또는 의미를 다루거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도구로서의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각 교회들이 주일에 겪고 있는 공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간부족은 교회학교 뿐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교회 공간 증축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교회학교 공간 확보에 대한 교회 전체적인 배려, 그리고 전이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연구 등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학교가 물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개인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개인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주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방문·전화·문자·메일 등)이 힘들다.	35 (11.2)	74 (23.6)	94 (30.0)	79 (25.2)	31 (9.9)	313 (100.0)
2) 나는 주일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힘들다.	56 (17.9)	114 (36.4)	69 (22.0)	61 (19.5)	13 (4.2)	313 (100)
3) 나는 우리 반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이 싫다.	63 (20.1)	108 (34.5)	83 (26.5)	52 (16.6)	7 (2.2)	313 (100.0)
4) 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고 느낄 때 힘들다.	65 (20.8)	118 (37.7)	77 (24.6)	50 (16.0)	3 (1.0)	313 (100.0)
5) 나는 교육부서 일로 사적인 부분에 침해받을 때 힘들다.	54 (17.3)	114 (36.4)	91 (29.1)	48 (15.3)	6 (1.9)	313 (100.0)
6) 나는 교사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다.	55 (17.6)	132 (42.2)	84 (26.8)	35 (11.2)	7 (2.2)	313 (100.0)

〈표 7〉 교사의 개인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개인적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주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방문·전화·문자·메일 등)이 힘들다’는 질문에 보통이다($n=94$, 30.0%), 그렇지 않다($n=79$, 25.2%), 그렇다($n=74$, 23.6%), 매우 그렇다($n=35$, 11.2%), 전혀 그렇지 않다($n=31$, 9.9%)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나는 주일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질문에 그렇다($n=114$, 36.4%), 보통이다($n=69$, 22.0%), 그렇지 않다($n=61$, 19.5%), 매우 그렇다($n=56$, 17.9%), 전혀 그렇지 않다($n=13$, 4.2%) 순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나는 우리 반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 받는 것이 싫다’는 질문에 그렇다($n=108$, 34.5%), 보통이다($n=83$, 26.5%), 매우 그렇다($n=63$, 20.1%), 그렇지 않다($n=52$, 16.6%), 전혀 그렇지 않다($n=7$, 2.2%) 순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고 느낄 때 힘들다’는 질문에 그렇다($n=118$, 37.7%), 보통이다($n=77$, 24.6%), 매우 그렇다($n=65$, 20.8%), 그렇지 않다($n=50$, 16.0%), 전혀 그렇지 않다($n=3$, 1.0%)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나는 교육부서 일로 사적인 부분에 침해받을 때 힘들다’는 질문에 그렇다($n=114$, 36.4%), 보통이다($n=91$, 29.1%), 매우 그렇다($n=54$, 17.3%), 그렇지 않다($n=48$,

15.3%), 전혀 그렇지 않다($n=6$, 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섯째, ‘나는 교사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다’는 질문에 그렇다($n=132$, 42.2%), 보통이다($n=84$, 26.8%), 매우 그렇다($n=55$, 17.6%), 그렇지 않다($n=35$, 11.2%), 전혀 그렇지 않다($n=7$, 2.2%) 순으로 응답하였다.

6-1)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사모임이나 회의 참석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사모임이나 회의 참석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	N(%)
시간이 없어서	199(63.6)
유익함을 못 느껴서	28(8.9)
귀찮아서	18(5.8)
기타	39(12.5)
갈등 및 스트레스 없음	29(9.3)
계	313(100.0)

<표 8> 교사모임이나 회의 참석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교사모임이나 회의 참석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조사 결과, 시간이 없어서($n=199$, 63.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n=39$, 12.5%), 유익함을 못 느껴서($n=28$, 8.9%), 귀찮아서($n=18$, 5.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한 동료교사가 없을 때, 다른 교사들이 회의를 등한시할 때, 피곤할 때, 회의나 모임이 잡담으로 흐를 때 등에서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응답자 중 29명(9.3%)은 갈등 및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들의 개인적인 갈등 및 스트레스 항목에 대해 여섯 항목 모두 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주중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방문·전화·문자·메일 등)이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조항철(2002: 37)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심방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회학교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가정과 교회가 지속적인 컨택션을 가지도록 하는데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심방은 목자가 양을 방문하고 돌아보고 살피는 것(잠 27:23)으로 가정과 연결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부모에 대한 낯설음, 의사소통능력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심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심방의 효과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심방 방법(기도심방, 전화심방, 편지심방, 인터넷심방, 상담심방, 유고심방, 초대심방 등)과 메뉴얼을 제시하여 가정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심방은 유아의 사정을 알게 하며, 기도할 제목을 얻고, 가정 전도의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학습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학교 분위기를 형성하게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고, 가정 또는 자녀가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 교사가 주님의 심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토요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주일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 시간관리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일을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다(김동춘, 2006: 111). 교회학교 교역자들은 교사들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시간 관리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반에서 일어나는 교육 전반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한다. 교사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교육신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그것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신념이란 어떤 사상(事相)이나 명제, 판단, 주장, 의견 등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박은혜, 2012: 80). 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을 펼쳐가는데 장애물이 생기거나 방해 또는 간섭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담당 교역자들은 교사들이 자신의 역할, 권한, 책임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교육신념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교사 간 마찰을 줄여가야 한다. 또한 그들의 역할에 대해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람에 의한 수행평가 보다는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찰을 줄여가는 방법이 된다.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반 아이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고 느낄 때에도 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대가를 바라고 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교사들은 아이

들에게 자신이 쏟는 애정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 유아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밝은 표정과 태도를 좋아하며,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교사를 좋아한다. 또한 온화한 음성으로 대하며 편애하지 않고, 유아들의 장점과 좋아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상호작용 해주는 교사를 좋아한다(이정환, 2005: 56-57). 교사들은 자신의 반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아이들의 특성과 눈높이를 잘 파악하고 그들과 친밀해 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애쓰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교육부서 일로 사적인 부분이 침해받을 때 힘들어 한다. 또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사모임이나 회의 참석도 험겨워 한다. 이 둘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교회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듯, 교사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간 관리는 사역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사명감에 따라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사적인 일은 가지 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매진할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한다. 교육부서 담당 교역자들은 교사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일 이야 말로 헌신과 봉사의 기본 전제가 됨을 늘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신입교사들에게 개인 시간관리, 우선순위 및 개인 사역 수 한정하기, 섬길 수 있는 충분히 시간 확보가 가능한지 생각한 후 교사지원하기 등의 교육을 통해 충동적으로 직분을 맡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교회학교 교사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 이를 교사교육에 반영하여 더 나은 교회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가르치는 사역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유아들을 가르치는 자이다(신언혁, 2004b:

46). 담임목사나 부서의 담당 교역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사들의 헌신과 협조가 없으면 교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소명감이 투철하며 성숙한 신앙을 가진 훈련된 교사의 유무가 교회학교의 성패를 좌우하며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손정위, 2011: 135). 교사들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학교를 기꺼이 섬겨 나가지만, 때로는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과의 마찰이나 부조화 속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긴장감을 주어 활력을 갖게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 교사들의 탈진은 결국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유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나아가서는 교회학교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사들이 영적·육적·정서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고에서의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사 개인이 겪는 갈등 및 스트레스는 결국 교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하면 그 부모가 행복할 수 있고, 그 부모가 행복하면 교회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 즉, 교회는 유기체이므로 한 부분은 반드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들의 고충을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가려는 노력은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며, 더 나은 교회학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하지만 정작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교회학교 교사들의 스트레스에 주목했다는 점,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있어서 곧바로 적용가능하며 구체적인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빈도분석을 통해 목양적인 관점에서 주로 조명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규명이나 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분석 등에 대한 연구, 교사들의 영성, 인간관계, 교회시스템, 개인적인 문제 등과 같은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현상에 관한 질적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용근 (2005). “서번트 리더십에 근거한 교회학교 교사 지도력 개발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7, 167-193.
- 김덕순 (2004).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을 중심한 의식구조의 현황과 분석”. 『기독교철학연구』, 2, 267-294.
- 김동춘 (2006).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경영관리』. 서울: 창지사.
- 김민태 (2010). “공간으로 말하는 기독교교육: 참여와 경험의 교회교육 공간”.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387, 9-12.
- 김성혜·강란혜 (2012).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77-97.
- 김정봉 (2008). 『교회학교를 세우는 9가지 법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희정 (2012). “복음과 실천신학. 교회 공간의 문화가 영적, 양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6, 201-233.
- 김희자 (1998). 『교사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1). 『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부.
- 박미라 (2001). “한국교회학교 교사의 요구분석: 세 개의 포커스 그룹 연구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2, 481-515.
- 박영수 (2010). 『교회교육 핸드북』. 서울: SFC 출판부.
- 박은혜 (2012).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손정위 (2011). “교회학교 교사들의 변혁적 리더십과 신앙성숙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31, 133-162.
- 신언혁 (2004a).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9, 425-451.
- 신언혁 (2004b). “소명의 교사직으로서 교회학교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찰”. 『기독교와 교육』, 12, 46-57.
- 신현광 (2012). “교회목회에 있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 477-514.
- 심현수 (2009).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 윤혜림 (2010). “교회학교의 교사자질 연구 분석 및 평가”. 『복음과 교육』, 6, 165-192.
- 이점조·최영희 (2009).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발달장애연구』, 13(1), 1-30.
- 이정환 (2005). 『유아교육 교수학습방법』. 서울: 교문사.
- 이종희 (2005). “지역사회를 위한 현대 교회의 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본당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59, 125-134.
- 이철승 (2011). 『교회교육의 회복』. 서울: (사)기독교문서선교회.
- 장화선 (2010). “교회 주일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 『신학지평』, 23(1), 33-58.
- 조항철 (2002). “교회학교 교사들의 봉사만족도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학 (2008). “교회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제언”. 『개혁주의 교회성장』 (3), 1-46.
- Hancock, Thomas E., Bufford, Rodger K., Lau, B. & Ninteman, N. (2005). “Valid Assessment of Spiritual Growth: A Survey of Christ-centered Living”. *Christian Education Journal*, 2(1), 129-153.
- MacDonald, G. (1984).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1990).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정 성장』.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 Roehlkepartain, Eugene C. (1993). *The Teaching Church: Moving Christian Education to Center Stage*. Nashville: Abingdon Press.

ABSTRACT

A Study on Conflicts and Stresses Experienced by Teacher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Church Schools

Dae-hyun Jung (Chongshin University)

Youn-mi Kwak (Chongshin University)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eachers of young children is foundational basis to construct appropriate environments in church school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kind of conflicts and stresses experienced by teacher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church schools. Total of 313 church school teachers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in Seoul and Kyung-gi areas were included.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produced using SPSS18.0 software. Results suggest that participants get stressed the most when they felt lack of spirituality and lack of parental cooperation. Additionally, more than half of participants expressed some kind of difficulties in the personal conflicts and stresses area(e.g., home-visiting during week, getting up early on Sunday mornings, finding not enough time for teacher meetings). Results have implications that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church school teachers' stresses and conflicts lead to improve driving forces of inspiring teachers' callings and devotions, and therefore to positive impacts to overall church schools.

Key Word: church school, teacher, conflict, stress

